꽃잎 떨어진 자리, 다시 초록이 돋다

〈 한지은 기자 jieun.han@ssangbo.kr 〉

지난 겨울 한파가 유난히 길었던 올해, 봄은 조금 늦게 찾아왔다. 3월 중순 이후 기온이 영하를 벗어나고 나흘 뒤 첫 꽃샘추위가 지나자 산수유가 먼저 노란 꽃을 피웠다. 이어 벚꽃이 일제히 봉오리를 열었고, 4월 첫 주말 전국 곳곳에서 개화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 개화는 평년보다 열흘 가량 늦었지만, 그만큼 꽃은 더 오래 머물렀다는 것이 현장 관측자들의 공통된 말이다.

기상청 산림기후팀 김도현 팀장은 "겨울 한파가 길었던 만큼 식물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가 충분했고, 그 덕분에 개화 기간이 평년보다 3일 정도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4월 중순 일교차가 15도를 넘나들었던 날이 이틀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일부 과수원 농가는 냉해 피해를 걱정했다. 다행히 서리는 내리지 않았고, 피해 신고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없다고 팀장은 덧붙였다.

벚꽃 명소 중 하나인 경주 보문단지는 주말 하루 방문객 약 4만 명을 기록했다. 단지 입구 주차장은 오전 9시 이전에 만차가 되었고, 셔틀버스 대기 줄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단지 관리사무소는 올해 처음 도입한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 덕분에 현장 혼잡이 작년보다 훨씬 줄었다고 밝혔다. 예약 없이 방문한 시민들은 외곽 주차장에서 셔틀을 타야 했지만, 불평보다 오히려 "이게 훨씬 낫다"는 반응이 많았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단지 내 한 떡집 사장은 "평일 매출은 작년 같지 않다"고 했지만, 인근 숙박업소는 예약 문의가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었다고 했다. 꽃이 오래 머물면 관광 소비가 분산되는 효과와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셈이다. 지역 상권 분석 전문가 박서연 씨는 "꽃 자체보다 그 주변 골목 매출이 올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벚꽃 터널 아래, 인파 속에 흩어진 봄날의 풍경

〈 윤성호 기자 seongho.yun@ssangbo.kr 〉

벚꽃이 만개한 주말 오후, 도심 한복판 가로수 길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사진 동호회 회원, 유모차를 밀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노부부까지 저마다 다른 속도로 봄을 즐기고 있었다. 올해 개화는 평년보다 열흘 가량 늦었지만, 그만큼 꽃은 더 오래 머물렀다는 것이 현장 관측자들의 공통된 말이다.

기상청 산림기후팀 김도현 팀장은 "겨울 한파가 길었던 만큼 식물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가 충분했고, 그 덕분에 개화 기간이 평년보다 3일 정도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4월 중순 일교차가 15도를 넘나들었던 날이 이틀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일부 과수원 농가는 냉해 피해를 걱정했다. 다행히 서리는 내리지 않았고, 피해 신고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없다고 팀장은 덧붙였다.

벚꽃 명소 중 하나인 경주 보문단지는 주말 하루 방문객 약 4만 명을 기록했다. 단지 입구 주차장은 오전 9시 이전에 만차가 되었고, 셔틀버스 대기 줄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단지 관리사무소는 올해 처음 도입한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 덕분에 현장 혼잡이 작년보다 훨씬 줄었다고 밝혔다. 예약 없이 방문한 시민들은 외곽 주차장에서 셔틀을 타야 했지만, 불평보다 오히려 "이게 훨씬 낫다"는 반응이 많았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단지 내 한 떡집 사장은 "평일 매출은 작년 같지 않다"고 했지만, 인근 숙박업소는 예약 문의가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었다고 했다. 꽃이 오래 머물면 관광 소비가 분산되는 효과와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셈이다. 지역 상권 분석 전문가 박서연 씨는 "꽃 자체보다 그 주변 골목 매출이 올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꽃잎 떨어진 자리, 다시 초록이 돋다

〈 한지은 기자 jieun.han@ssangbo.kr 〉

지난 겨울 한파가 유난히 길었던 올해, 봄은 조금 늦게 찾아왔다. 3월 중순 이후 기온이 영하를 벗어나고 나흘 뒤 첫 꽃샘추위가 지나자 산수유가 먼저 노란 꽃을 피웠다. 이어 벚꽃이 일제히 봉오리를 열었고, 4월 첫 주말 전국 곳곳에서 개화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 개화는 평년보다 열흘 가량 늦었지만, 그만큼 꽃은 더 오래 머물렀다는 것이 현장 관측자들의 공통된 말이다.

기상청 산림기후팀 김도현 팀장은 "겨울 한파가 길었던 만큼 식물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가 충분했고, 그 덕분에 개화 기간이 평년보다 3일 정도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4월 중순 일교차가 15도를 넘나들었던 날이 이틀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일부 과수원 농가는 냉해 피해를 걱정했다. 다행히 서리는 내리지 않았고, 피해 신고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없다고 팀장은 덧붙였다.

벚꽃 명소 중 하나인 경주 보문단지는 주말 하루 방문객 약 4만 명을 기록했다. 단지 입구 주차장은 오전 9시 이전에 만차가 되었고, 셔틀버스 대기 줄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단지 관리사무소는 올해 처음 도입한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 덕분에 현장 혼잡이 작년보다 훨씬 줄었다고 밝혔다. 예약 없이 방문한 시민들은 외곽 주차장에서 셔틀을 타야 했지만, 불평보다 오히려 "이게 훨씬 낫다"는 반응이 많았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단지 내 한 떡집 사장은 "평일 매출은 작년 같지 않다"고 했지만, 인근 숙박업소는 예약 문의가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었다고 했다. 꽃이 오래 머물면 관광 소비가 분산되는 효과와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셈이다. 지역 상권 분석 전문가 박서연 씨는 "꽃 자체보다 그 주변 골목 매출이 올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꽃잎 떨어진 자리, 다시 초록이 돋다

〈 한지은 기자 jieun.han@ssangbo.kr 〉

지난 겨울 한파가 유난히 길었던 올해, 봄은 조금 늦게 찾아왔다. 3월 중순 이후 기온이 영하를 벗어나고 나흘 뒤 첫 꽃샘추위가 지나자 산수유가 먼저 노란 꽃을 피웠다. 이어 벚꽃이 일제히 봉오리를 열었고, 4월 첫 주말 전국 곳곳에서 개화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 개화는 평년보다 열흘 가량 늦었지만, 그만큼 꽃은 더 오래 머물렀다는 것이 현장 관측자들의 공통된 말이다.

기상청 산림기후팀 김도현 팀장은 "겨울 한파가 길었던 만큼 식물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가 충분했고, 그 덕분에 개화 기간이 평년보다 3일 정도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4월 중순 일교차가 15도를 넘나들었던 날이 이틀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일부 과수원 농가는 냉해 피해를 걱정했다. 다행히 서리는 내리지 않았고, 피해 신고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없다고 팀장은 덧붙였다.

벚꽃 명소 중 하나인 경주 보문단지는 주말 하루 방문객 약 4만 명을 기록했다. 단지 입구 주차장은 오전 9시 이전에 만차가 되었고, 셔틀버스 대기 줄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단지 관리사무소는 올해 처음 도입한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 덕분에 현장 혼잡이 작년보다 훨씬 줄었다고 밝혔다. 예약 없이 방문한 시민들은 외곽 주차장에서 셔틀을 타야 했지만, 불평보다 오히려 "이게 훨씬 낫다"는 반응이 많았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단지 내 한 떡집 사장은 "평일 매출은 작년 같지 않다"고 했지만, 인근 숙박업소는 예약 문의가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었다고 했다. 꽃이 오래 머물면 관광 소비가 분산되는 효과와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셈이다. 지역 상권 분석 전문가 박서연 씨는 "꽃 자체보다 그 주변 골목 매출이 올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꽃잎 떨어진 자리, 다시 초록이 돋다

〈 한지은 기자 jieun.han@ssangbo.kr 〉

지난 겨울 한파가 유난히 길었던 올해, 봄은 조금 늦게 찾아왔다. 3월 중순 이후 기온이 영하를 벗어나고 나흘 뒤 첫 꽃샘추위가 지나자 산수유가 먼저 노란 꽃을 피웠다. 이어 벚꽃이 일제히 봉오리를 열었고, 4월 첫 주말 전국 곳곳에서 개화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 개화는 평년보다 열흘 가량 늦었지만, 그만큼 꽃은 더 오래 머물렀다는 것이 현장 관측자들의 공통된 말이다.

기상청 산림기후팀 김도현 팀장은 "겨울 한파가 길었던 만큼 식물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가 충분했고, 그 덕분에 개화 기간이 평년보다 3일 정도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4월 중순 일교차가 15도를 넘나들었던 날이 이틀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일부 과수원 농가는 냉해 피해를 걱정했다. 다행히 서리는 내리지 않았고, 피해 신고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없다고 팀장은 덧붙였다.

벚꽃 명소 중 하나인 경주 보문단지는 주말 하루 방문객 약 4만 명을 기록했다. 단지 입구 주차장은 오전 9시 이전에 만차가 되었고, 셔틀버스 대기 줄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단지 관리사무소는 올해 처음 도입한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 덕분에 현장 혼잡이 작년보다 훨씬 줄었다고 밝혔다. 예약 없이 방문한 시민들은 외곽 주차장에서 셔틀을 타야 했지만, 불평보다 오히려 "이게 훨씬 낫다"는 반응이 많았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단지 내 한 떡집 사장은 "평일 매출은 작년 같지 않다"고 했지만, 인근 숙박업소는 예약 문의가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었다고 했다. 꽃이 오래 머물면 관광 소비가 분산되는 효과와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셈이다. 지역 상권 분석 전문가 박서연 씨는 "꽃 자체보다 그 주변 골목 매출이 올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꽃잎 떨어진 자리, 다시 초록이 돋다

〈 한지은 기자 jieun.han@ssangbo.kr 〉

지난 겨울 한파가 유난히 길었던 올해, 봄은 조금 늦게 찾아왔다. 3월 중순 이후 기온이 영하를 벗어나고 나흘 뒤 첫 꽃샘추위가 지나자 산수유가 먼저 노란 꽃을 피웠다. 이어 벚꽃이 일제히 봉오리를 열었고, 4월 첫 주말 전국 곳곳에서 개화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 개화는 평년보다 열흘 가량 늦었지만, 그만큼 꽃은 더 오래 머물렀다는 것이 현장 관측자들의 공통된 말이다.

기상청 산림기후팀 김도현 팀장은 "겨울 한파가 길었던 만큼 식물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가 충분했고, 그 덕분에 개화 기간이 평년보다 3일 정도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4월 중순 일교차가 15도를 넘나들었던 날이 이틀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일부 과수원 농가는 냉해 피해를 걱정했다. 다행히 서리는 내리지 않았고, 피해 신고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없다고 팀장은 덧붙였다.

벚꽃 명소 중 하나인 경주 보문단지는 주말 하루 방문객 약 4만 명을 기록했다. 단지 입구 주차장은 오전 9시 이전에 만차가 되었고, 셔틀버스 대기 줄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단지 관리사무소는 올해 처음 도입한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 덕분에 현장 혼잡이 작년보다 훨씬 줄었다고 밝혔다. 예약 없이 방문한 시민들은 외곽 주차장에서 셔틀을 타야 했지만, 불평보다 오히려 "이게 훨씬 낫다"는 반응이 많았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단지 내 한 떡집 사장은 "평일 매출은 작년 같지 않다"고 했지만, 인근 숙박업소는 예약 문의가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었다고 했다. 꽃이 오래 머물면 관광 소비가 분산되는 효과와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셈이다. 지역 상권 분석 전문가 박서연 씨는 "꽃 자체보다 그 주변 골목 매출이 올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꽃잎 떨어진 자리, 다시 초록이 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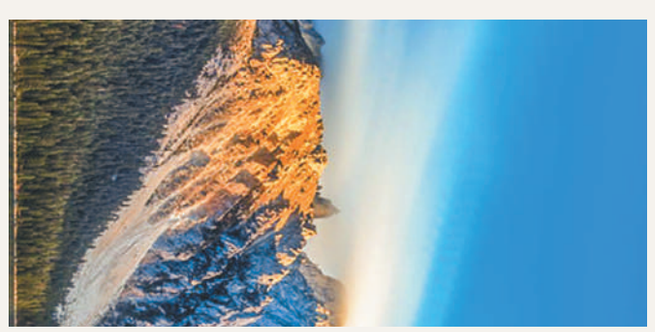
〈 한지은 기자 jieun.han@ssangbo.kr 〉

지난 겨울 한파가 유난히 길었던 올해, 봄은 조금 늦게 찾아왔다. 3월 중순 이후 기온이 영하를 벗어나고 나흘 뒤 첫 꽃샘추위가 지나자 산수유가 먼저 노란 꽃을 피웠다. 이어 벚꽃이 일제히 봉오리를 열었고, 4월 첫 주말 전국 곳곳에서 개화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 개화는 평년보다 열흘 가량 늦었지만, 그만큼 꽃은 더 오래 머물렀다는 것이 현장 관측자들의 공통된 말이다.

기상청 산림기후팀 김도현 팀장은 "겨울 한파가 길었던 만큼 식물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가 충분했고, 그 덕분에 개화 기간이 평년보다 3일 정도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4월 중순 일교차가 15도를 넘나들었던 날이 이틀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일부 과수원 농가는 냉해 피해를 걱정했다. 다행히 서리는 내리지 않았고, 피해 신고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없다고 팀장은 덧붙였다.

벚꽃 명소 중 하나인 경주 보문단지는 주말 하루 방문객 약 4만 명을 기록했다. 단지 입구 주차장은 오전 9시 이전에 만차가 되었고, 셔틀버스 대기 줄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단지 관리사무소는 올해 처음 도입한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 덕분에 현장 혼잡이 작년보다 훨씬 줄었다고 밝혔다. 예약 없이 방문한 시민들은 외곽 주차장에서 셔틀을 타야 했지만, 불평보다 오히려 "이게 훨씬 낫다"는 반응이 많았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단지 내 한 떡집 사장은 "평일 매출은 작년 같지 않다"고 했지만, 인근 숙박업소는 예약 문의가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었다고 했다. 꽃이 오래 머물면 관광 소비가 분산되는 효과와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셈이다. 지역 상권 분석 전문가 박서연 씨는 "꽃 자체보다 그 주변 골목 매출이 올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한국일보 2026년 제 3 사유월호 27 일자 무지개 소식 섹션

이 번 주 부터 시작되는 무지개 소식 섹션
이 번 주 부터 시작되는 무지개 소식 섹션
이 번 주 부터 시작되는 무지개 소식 섹션